

한라포커스 제주교육 뜨거운 감자 'IB(국제 바칼로레아)'

“새로운 교육모델” vs “성급한 정책”

제주도교육청 IB학교 인증절차 험로 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제 공인 평가·교육과정인 IB(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표선고등학교를 '한국어 IB 학교'로 선정하면서 일단 첫발을 떼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남은 관문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미래 인재 키우자”... 걸음 때는 IB 학교=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 기관인 IBO가 운영하는 초·중·고 교육프로그램이다. 토론과 발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 논술형 시험을 치르는 게 핵심이다. 제주도교육청은 IB 도입을 통해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IB DP(고등학교 과정)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IB 학교' 공모(10월 4일~11월 1일)를 통해 선정한 표선고를 중심으로 관심·후보·인증학교 등 IBO의 단계별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

IB 학교로 최종 인증되며, 한국어로 번역한 IB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청 IB 도입 시동... 시각차 뚜렷=학교 선정으로 IB 도입에 시동이 걸린 것과 달리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엇갈린다. 표선지역 초·중·고 학부모 사이에서도 IB가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의 대안이 될 거라는 기대감과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일부 학부모가 아닌 표선초 2·3학년 전 학급에서 IB 교육프로그램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지면서 IB를 원치 않거나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지어 이탈, 대학 입시와의 낮은 연계성으로 인한 대학 선택 제한 등에 대한 우려가 풀리지 않는 탓이다.

이는 제주와 함께 공교육에 IB를 도입하고 있는 대구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에선 IB 초등학교 과정(PYP)과 중학교 과정(MYP)은 인증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학 입시와 연계성이 큰 고등학교 과정은 희망 학생에 한해 2·3학년 일부 학

급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으로 도입되는 IB가 임기 후에 지속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같은 우려는 제주도교육청이 넘어야 할 과제로 남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IB를 지속가능할 수 있게 학교장에 전폭적인 자율권을 주는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학교 측의 요구를 수용해 급하게 가지 않도록 시기를 늦췄다”면서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제대로 된 교육 모델을 만드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바 쿠마리 IBO 회장은 지난 22~23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제주교육 국제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서 “제주와 대구의 국가지원학교에서 IB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펼쳐질지 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IB를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은 다가올 미래를 위한 사고와 기술에 대비하면서 현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겨울나기 위해 제주찾은 저어새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1, 멸종위기종 1급) 10여마리가 제주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 24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해안가에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내년 제주 현안 예산·법안 어찌될까

국회 29일쯤 예결위... 농산물운송비·제2공항 예산 촉각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이번주 추가 법안소위 논의 전망

국회가 이번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막바지 심의에 나서며 제주 현안 예산과 법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내달 2일로, 여야는 오는 29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갈등 때문에 의결을 하지 못할 경우 예결위 활동 종료와 함께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 주요 현안들과 관련된 예산의 운명도 이번주말 또는 적어도 1일 밤까지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성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실에 따르면 제주 농민들의 숙원인 농산물해상운송비 관련 국비는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는 증액 의결됐지만, 이번주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논의를 통해 증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해도 상임위에서는 증액됐지만, 결국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국방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선행조사 연구비 예산과 관련해 부대조

건이 그대로 정부안에 반영될 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국회 국방위가 당초 정부안에 반영됐던 예산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국방부 자체 예산으로 선행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대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비 예산도 최근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특위를 출범하며 도민 의견수렴에 나선 만큼

삭감요구가 커지고 있다. 제2공항반대단체들은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자 관련 예산 삭감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번 주에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과 4·3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은 이번주 중점처리법안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해줄 것을 행안위 법안소위에 요청한 상태다.

서윤·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내년 해양수산 예산 뒷걸음질

전년 비해 428억 감소 도의회 “도, 의지 있나”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고로 편성했지만 해양수산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2일 제37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2020년 제주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에 해양수산관 관련은 1337억원

으로, 지난해 1765억원 대비 428억원 줄었다. 행정시를 포함해도 2620억원에서 2153억원으로 감소한 상태다. 내년도 전체 예산안이 전년대비 5000억 이상 증액한 점을 보면 초라한 수준이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당초 예산 30%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된 예산안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내년에 무슨 돈으로 사업할 생

각이나”면서 “농업 분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했는데, 해양수산은 뭘 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도 “제주도정이 1차산업에 힘쓰겠다고 말하면서 예산안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동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500억원대 일몰 사업 9건이 겹치면서 수직상 부족해 보일 수 있다. 미흡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송은범기자

▶▶ 기획 7면... 한국해녀를 말하다 ⑧ 전남 연도마을

알림

한라일보에서 당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세요

유료 판매부수 제주도내 1위, 신뢰도 1위 신문
환경 중심, 사람 중심, 칭찬하는 신문
뉴미디어 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는
한라일보가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제주의 가치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꿈,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 수습기자(신입) 0명

제출서류 : 1. 한라일보 소정양식의 인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최종학력증명서
3. 지적·면허 사본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서류접수 : ty064@hallailbo.co.kr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접수마감 : 2019년 12월 9일(월) 18:00까지
문의 : 한라일보 경영기획실 064)750-253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주를 담고, 미래를 담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
10년 공공임대주택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71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록)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11월 29일 891세대
모집예정

59㎡, 74㎡, 84㎡ | www.jdcenter.com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특징

자연친화 공간

태양광 설비를 통한 친환경 단지 구원 및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축소

제주 자연을 담은 조경공간 조성

지상 차없는 아파트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조성을 통해 조경면적 확대 및 보행자 안전성 제고

법적기준 대비 약 1.4배 주차 확보

아이들도 즐거운 공간

단지 내(행복주택 내) 어린이집 마련을 통한 입주세대 보육 문제 해소

아이들이 언제든지 뛰놀 수 있는 놀이터 설치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입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목적 회의실, 경로당, 민스 스테이션, 주민휴게공간 등 설치 및 무인택배시설 같은 편의시설 조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평면도

59㎡ A type 187세대

59㎡ B type 32세대

59㎡ C type 12세대

74㎡ type 82세대

84㎡ type 78세대